



Liam Gillick

There Should Be Fresh Springs... 10.19~11.23 갤러리바톤

사진 박홍순

허구와 실재 사이 어딘가에 솟아나는 샘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가 리암 길릭이 서울 한남동 갤러리바톤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샘들이 솟아나야 한다>(10.19~11.23)로 명명된 이번 전시는 작가가 뉴욕 컬럼비아 대학원생들과 '가상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화두로 5일간 토론하며 나온 문구를 모티프로 한 헬베티카 폰트의 텍스트와 알루미늄 소재의 부조를 선보인다.

오브제와 텍스트를 함께 배치하는 리암 길릭 특유의 작업 방식은 이번 전시에도 적용되었다. "오브제나 텍스트 어느 하나가 빠지면 부족해 보인다. 오브제의 추상성이 텍스트가 명시하는 의미와 직면하면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해결되지 않는 '역설적 균형' 상태는 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작품과 관객 그리고 관객들 상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시적인 텍스트는 허구와 상상의 통로로 연결되어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변화를 끊임없이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텍스트는 어떤 순간의 표현임과 동시에 목적 달성을 향한 무언의 여정을 뜻할 수도 있다. 이는 관객 각자의 지혜와 호기심을 통해 상상할 수 있다. 가끔 스스로에게 전시가 허구인지 실재인지 묻는다. 이번 전시는 허구와 실재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전시이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리암 길릭의 작업 전략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함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건축물을 활용한 작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된다. 2003년 영국 홈 오피스 빌딩과 2016년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서 선보인 <모든 관계가 균형을 이르면, 건물은 사라질 것이다>는 텍스트를 통해 건축물의 숨은 이면을 드러냄으로써 건축물과 연관된 관계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의 관심사는 건축물로 둘러싸인 삶의 환경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있다. 도심 속 건축물이 도시를 컨트롤하며 고정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면, 내 목적은 건축물의 부차적이고 낯선 형태로부터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 기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계획하는 일, 낯선 곳을 향한 기대, 타인을 향한 연민 등, 실체 없는 생각과 감정의 출발점은 누군가와 공유됨으로써 현실의 차원에서 구체화되기 시작된다. 이 공유의 과정은 기존의 관계를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게 하고 각자의 역할 또한 변화시킨다. 리암 길릭은 자신의 작업이 이 과정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든지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우울감은 과거로부터 기인하고 불안감은 미래를 향한다. 예술은 이 두 요소를 불러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우울감, 불안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박유리 기자



왼쪽 6월 서울 한남동으로 이전한 갤러리바톤 외관 오른쪽 리암 길릭 <Spun Off>(사진 왼쪽) 코팅된 알루미늄 150×263×10cm 2018